

## 전남 농산물 직판장 부실 운영 서울·부산서 줄줄이 문닫아

### 판로 확보 비상

전남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가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왔다 튀 설립했던 농·특산물 판매점이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지 못하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어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농업도 안정적 판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자치단체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 부산·제주 지역에서 운영했던 농·특산물 직판장이 관리 부실과 경쟁력 상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상가 건물 1층(315㎡)을 임대해 운영해온 농·특산물 직판장을 조만간 철수키로 했다.

담양군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도권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11억원을 건물 임대료로 내고 농·축협은 상주직원을 두고 지역 생산품인 쌀·멜론·딸기·방울토마토와 한과류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 직판장은 그러나 2008년 3억4900만원, 2009년에는 6억44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상주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군은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다.

해남군도 수역원의 전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위탁 운영했던 4개의 지역 농산물 판매장 가운데 부실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 3개를 철수시켰다. 2002년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마련했던 땅끝해남 농산물판매장(148.76㎡)은 5년만인 2007년 만성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았고, 부산시 사상구 폐업동에 마련한 해남농산물직판장(165.28㎡)도 2007년에 간판을 내렸다. 서울 목동에 마련한 직판장(155.37㎡)도 지난 2006년 운영을 포기했다. 그나마 마포구 망원동에 남

아있는 해남농수특산물판매장(255㎡)도 일반인에게 경영을 위탁한 뒤 임대료(2억5000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농수산물에다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소형 합인마트'로 전락,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보성군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직판장(92㎡)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쌀·녹차 등 지역 농특산물으로는 구색을 맞추기 힘들어 타지역 생산품인 한우와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도 비슷하다. 지난 2000년 13억8900만원을 투입, 제주 서귀포에 농특산물 직판장(연면적 1188.45㎡)을 건립한 뒤 위탁운영을 맡았다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임대업자의 사업포기로 지역 특산물 판매를 접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도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충분한 사전검토나 상권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한옥 정자서 하늘천 따지...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광주YMCA 여름방학캠프 '하늘천 따지 예절학당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옥 2층 정자서에서 훈장으로부터 서창 들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지용기자 jeans@

## “추석 연휴 첫 날 전대라니...”

민주당 9월18일로 결정...선물공세 등 과열·혼탁 우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사실상 추석 연휴 첫 날인 다음달 1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열·혼탁 및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문화상 위원장 주재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8일 고양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이미경 사무총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시·도당 개편대회와 국정감사, 11월 G20 정상회의 등

제반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12일 전대 열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로 늦추는 설명이다.

올 추석의 법정 공휴일은 화요일인 21일부터 사흘간이지만, 월요일이 평일인 징검다리 연휴라서 대부분의 직장이 18일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상당수 당권주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선물 돌리기 등으로 과열 혼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의원 이동 차량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전당대회 시간에 맞추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 지각 도착이 속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민주당원은 “전대 준비위원들이 고비용 전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연휴 시작일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권 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이 이날 “추석전대 3불가론”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추석 전대를 치르게 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관권을 동원했던 조직선거, 금권선거가 유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당원, 대의원들의 전대 참여율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당대회를 9월 초로 앞당기고 야외에서 치르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대 준비위 기획본과에 오영식·노용래 위원, 총무본과에는 김영주 위원, 조직본과에 안규백·정창대 위원 등 각 본과 위원들을 선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호텔 ‘비엔날레 특수’

아트페어에 G20차관회의 다음달 초 객실 예약 끝나다

광주지역 호텔들이 ‘광주비엔날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오는 9월3일 제8회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9월1일~5일 사이, 광주 지역 호텔들의 객실 예약이 대부분 꽂혔다.

3일 현재 프라도호텔(총객실 111실)은 9월1일~5일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나 더 이상 방을 잡을 수 없다. 신양파크호텔(70실)도 1~4일 모든 객실이 찻고, 5일에도 50개의 객실 예약이 끝났다.

마스터스호텔(48실)은 1~2일 모든 객실이 나갔고 3~5일은 60~7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센트럴관광호텔(총객실 43실)은 1~2일 예약 완료, 3~5일 60~70%의 방이 동났다. 이밖에 허딩크콘티넨탈관광호텔(55실)도 1~5일 10~20개의 객실 예약이 완료돼 평소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신양파크호텔 호텔 관계자는 “한 달 전에 예약률 100%를 달성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객실 예약률이 높은 것은 과거 타지 관람객들이 당일 관람 후 광주를 빠져나간 것과는 달리, 최근 광주비엔날레가 국내

의 화단의 인정을 받으면서 ‘체류형 행사’로 진화하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이 기간에 광주의 첫 국제미술장터인 ‘2010 아트광주’(9월1일~5일)가 열린데다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제부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9월4~5일)측이 행사 기간 동안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 객실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에는 최근 “방 좀 잡아달라”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 영암 F1 코리아 서킷 로고 확정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주장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의 상징 이미지가 정해졌다. <관련기사 16면> 대회 운영법인 KAVO는 4일 KIC를 대표하는 로고를 확정, 발표

했다. 디자인은 무한속도로 뻗어나가는 서킷과 레이싱의 열정, 에너지를 주제로 했다.

태극 문양에 레이싱 트랙과 승리의 상징인 피니시 깃발 디자인이 결합한 것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살리면서 모터스포츠의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게 KAVO측 설명이다.

중심으로 휘감기는 모양의 태극 문양의 경우 첨단기술과 산업, 사람과 문화가 응집하는 스피드 메카로서 서킷 위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타른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